기업가정신,국민대학교
Entrepreneurship, The KOOKMIN

2024학년도 2학기 문헌연구보고서

일회용품 정책
: 문화를 만드는 정책의 필요성

이름	박준희
전공	사회학과
학번	20240396

일회용품 정책: 문화를 만드는 정책의 필요성

박준희 (사회학과)

- 목차 -

Ⅰ. 서론
Ⅱ. 국내 일회용품 정책 및 현황
Ⅲ. 국내 일회용품 정책의 실패 원인 분석
  1. 불충분한 시장 조사
  2. 성급한 도입
  3. 잦은 정책 변화
Ⅳ. 정책 방향성 제시
  1. 지역별 특성 반영
  2. 접근성 및 지속성 강화
  3. 다회용기 사용
Ⅴ. 결론

Ⅰ. 서론

2024년에 발표한 WHO의 보고서[1]에 따르면 앞으로 5년 전체의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를 넘을 가능성이 47%라고 한다. 이는 지난해(2023) 보고서보다 15%p 상승한 값이다. 심지어 일시적으로 1.5도를 초과할 가능성은 80%라고 한다. 이로 미루어 봤을 때 파리기후협약에서 결의한 1.5도를 넘길 날도 멀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다. 더는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에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까지의 기후위기, 탄소 감축의 논의는 주로 정부, 기업, 생산을 초점으로 하여 거시적인 관점에서 진행되었다. 기후위기가 전세계적인 수준의 문제이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기업 등 비교적 구조적인 부분에서만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진정으로 탄소 감축 목표를 이루려면 정부, 기업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행동이 필요하다. 개인 차원의 접근은 현재 학계의 새로운 흐름이다. 이는 생태 시민성으로 표현된다. 김병연은 생태 시민성이 세계화와 환경적 책임의 개인화라는 배경 속에서 나타난, 공적 영역 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도 정의와 배려, 동정과 같은 시민적 덕성을 요구하는 새로운 형태라고 말한다.[2] 환경문제의 책임이 개인들의 생활방식에도 있다는 인식의 등장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개인 관련 접근은 개인의 인식 변화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한계를 갖는다.[3] 개인의 행동은 정부 정책과 기업 활동의 부수적인 측면으로 다뤄졌을 뿐이다. 개인의 인식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인식 변화를 촉구하고 일상에서 탄소 감축을 실천하게 만들려면 문화와 같은 개

1) 김세현(2024.06.05.), 「5년 내 지구 기온 '1.5도' 돌파 가능성↑9…WMO "암울한 현실"」, 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81309(2024.11.31.)
2) 김병연(2011).「생태 시민성 논의의 지리과 환경 교육적 함의」,『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19(2),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221쪽.
3) 정진영·이희란(2019),「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이 환경보호에 대한 대학생의 의식수준에 미치는 영향 연구」,『한국생활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한국생활과학회, 64쪽.

인 외부적 요소가 필요하다. 이는 정부 정책과 같은 사회 구조의 기능이다. 따라서 탄소를 감축하기 위해선 문화를 만드는 측면에서의 정부 정책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개인과 밀접한 탄소 감축 요소로는 일회용품을 꼽을 수 있다. 문순홍·정규호는 “일회용품 사용의 일상화는 자원 낭비적인 생활 양식의 확산으로 국민 환경의식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4]고 말한다. 일회용품은 사용 시의 탄소 배출을 넘어서 다른 영역에서의 자원 낭비를 무감각하게 만든다.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억제는 자원 낭비에 대한 개인의 인식 변화를 촉구하고 탄소 감축 문화를 만드는 발판이 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했을 때, 개인에게 적용되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 탄소 감축 정책 중 개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것은 일회용품에 관한 내용이다. 그렇기에 본 보고서에서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일회용품 정책을 다룰 것이다.

Ⅱ. 국내 일회용품 정책 및 현황

현재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회용품 정책은 다음과 같다.

명칭	시행일	주요내용	비고
자원재활용법	1993.6.9.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 제정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2002.10.4.	일회용 컵 보증금제 자발적 운영 도입	-
자원재활용법	2003.1.1.	일회용품 사용규제 확대적용	-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2003.3.20.	일회용 컵 보증금제 자발적 운영 폐지	-
자원재활용법	2018.8.1.	커피전문점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금지 도입	-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2019.1.1.	대형마트 및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금지	-
자원재활용법	2020.2.23.	커피전문점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금지	한시적 허용
자원재활용법	2022.4.1.	커피전문점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금지	재도입
자원재활용법	2022.6.10.	일회용 컵 자원순환보증금 제도(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	유예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2022.11.24.	매장 내 일회용품(종이컵·플라스틱 빨대·젓는막대) 사용금지	-
		종합소매업 등에서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
자원재활용법	2022.12.2.	일회용 컵 자원순환보증금 제도(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	변경: 시범도입
자원재활용법	2023.3.28.	숙박업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	-
		전자상거래 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하여 제공·판매·배달 시 소비자가 일회용품 사용여부 선택	-

<표 1>[5]

본 보고서에서는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이하 ‘일회용품 사용금지’)와 ‘일회용 컵 자원순환보증금 제도’(이하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다룰 것이다.

일회용품 사용금지 정책은[6] 매장 내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을 사용 금지한다. 카페의 경우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비닐 캐리어 등을 사용할 수 없고 편의점의 경우 비닐봉투를, 그 외 업장에서는 일회용 우산 비닐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체육시설에서는 일회용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일회용품 사용

4) 문순홍·정규호(2000),「생태근대화론으로 분석한 우리나라 일회용품 관리 정책」,『현상과인식』통권 81호, 한국인문사회과학회, 143쪽.
5) 유재영·이욱·황혜선(2023),「일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온라인 뉴스 및 댓글 분석」,『소비자학연구』제34권 제5호, 한국소비자학회, 6쪽.
6) 이초원(2022.10.26.),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제한’ 우리 실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딜티:딜라이브 TV, https://www.youtube.com/watch?v=jxPm8GSYsCc(2024.12.12.)

금지는 현재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을 사용 가능하게 하는 등 규제가 완화되었다. 계도 기간은 무기한 연장된 상태이다.[7)]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정책이란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을 지불하고 일회용컵을 반납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내용의 정책을 말한다. 이 정책은 본래 도입되기로 했던 2022년 6월에 한 차례 유예되었고 그 후 제주와 세종으로 범위가 축소되어 2022년 12월에 시행되었다. 현재는 시범도입으로 변경된 상태로, 의무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지자체가 선택하게끔 운영하고 있다.

Ⅲ. 국내 일회용품 정책의 실패 원인 분석

국내의 일회용품 정책은 지금까지 큰 발전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일회용 봉투 무상제공금지, 전자상거래 시 일회용품 사용여부 선택과 관련된 정책은 잘 자리 잡았지만, 이 외의 정책들은 사실상 규제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더해서 일회용품 사용금지와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제외하고는 과거 도입된 정책을 확대 적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대형마트에서 일회용 봉투를 무상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이 2019년에 도입되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4년 만에 차별성 있는 정책이 등장한 것이다. 정책들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금지 정책과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중심으로 실패 원인을 분석해 보려고 한다.

1. 불충분한 시장 조사

첫 번째, 일회용품 사용금지 정책의 시행 이후 영세업자들의 지출이 증가하였다. 종이 및 친환경 인증 봉지가 일반 비닐 봉지보다 2.5배 비쌌기 때문이다. 또한 영세업자들은 다회용컵 및 종이 빨대에 불만을 가진 손님을 설득해야 했다. 정책이 도입되었다는 걸 모르고 있던 손님들이 많았기 때문이다.[8)] 소비자는 다회용컵, 특히 종이 빨대 사용에 있어 불편을 겪었다. 종이 빨대는 음료를 마시다보면 풀어져서 음료 맛이 바뀌기도 하고 사용감이 변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이후 영세업자는 정책에 대해 불만을 가진 소비자가 주문을 취소하는 상황을 겪어야 했다. 소비자는 예상한 금액보다 더 지출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겪었다.[9)] 일회용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매장 간 교차반환이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느낀 것이다.

현장의 지속적인 불만은 결국 정책의 실패로 이어졌다. 이러한 불만은 정책이 현장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 정책은 지속가능성에 기반한다. 지속가능성이란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위태롭게 하지 않고 현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10)]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현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 세대가 과한 불편을 감수하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현 세대의 과한 불편은 결국 정책의 폐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가 쉽게 접하지 못하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체 사회의 ‘문화’가 될 수 없다.

---

7) 장세만(2023.11.07.), <일회용품 사용 규제 완화…종이컵·플라스틱 빨대 허용>, SBS 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LQkGRnoxt8k(2024.12.12.)

8) 박준영(2024.02).「거꾸로 가는 환경 정책 일회용품 규제 포기한 정부… 소상공인 피눈물」.『월간환경』2024년 2월호, (주)이젠그린, 78쪽.

9) 정성원(2024.11.02.), <“가격도 2배인데 굳이?”…외면 받는 종이빨대>, 채널A News, https://www.youtube.com/watch?v=oze-rW2zcUE(2024.12.11.)

10) WCED, Our Common Future(London Oxford, 1987), 43쪽. 문순홍·정규호(2000),「생태근대화론으로 분석한 우리나라 일회용품 관리 정책」,『현상과인식』통권 81호, 한국인문사회과학회, 137쪽. 재인용.

2. 성급한 도입

첫 번째, 일회용품 사용금지는 '매장 내'라는 단서가 붙는다. 일례로 체육시설의 경우[11], 시설에서 배포하는 것은 안 되지만 개인이 가져오는 것은 괜찮다. 더해서 체육 관련 행사가 거리 행진이라면 배포까지 허용된다. 카페나 기타 음식점의 경우, 매장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는 것은 안 되지만 포장 손님은 빨대를 가져가서 사용해도 된다.

두 번째,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보증금 지급관리 시스템, 수거 시스템, 가맹점 지원 체계 등에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보증금 지급관리 시스템의 경우 시행 시점 3개월 전까지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다. 이후에 점포마다 다른 포스기에 연계해야 한다. 이에 환경부는 한두 달 동안 운영하며 시행착오를 겪겠다는 견해다. 더해서 환경부는 수거 시스템과 가맹점 지원 체계의 경우 따로 수거업체와 계약하지 않았다.[12]

위의 사례들을 보았을 때 정부는 정책 시행에 있어 현장과 많은 갈등을 겪었다. 규제 적용 범주가 개인이 이해하기 어렵다면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는 가이드라인 제공과 홍보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더해서 충분한 제도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를 시작하는 것은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환경 정책에 대한 소극적 참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후 적용될 환경 정책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느끼는 요인이 될 수 있다.

3. 잦은 정책의 변화

첫 번째, 일회용품 사용금지 정책은 도입 이후 일부 규제가 완화되었고 계도 기간이 무기한 연장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회용품 사용금지 정책과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금지 정책이 혼동되었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금지는 커피전문점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정책이다. 일회용품 사용금지 정책과 일회용 플라스틱에 관한 정책은 다름에도, 일부 커피전문점의 경우 이를 혼동하여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컵을 제공하고 있다.[13]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플라스틱 빨대인데 이를 플라스틱 컵까지 포함한다고 오해한 것이다.

두 번째,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경우 시행 6개월 전 기간 유예가 되었다. 더해서 시행 직전 전국 단위에서 세종과 제주로 지역이 축소된 채 도입되었다.

문순홍·정규호[14]는 지속가능성이 세 가지 원칙으로 세분화된다고 본다. '미래성', '형평성', '생태성'이 그것이다. 이때 세대 간의 균형을 추구하는 원칙인 '미래성' 관점에서 강한 지속 가능성은 사회 전반의 변화를 전제로 하고 있어 단기 시간대보다는 장기 시간대에 보다 친화적이라고 한다. 따라서 정책의 잦은 변화는 개인의 혼란과 피해를 넘어 환경 정책의 본질에도 벗어나는 것이다. 문순홍·정규호는 대한민국의 일회용품 관리 정책에 대해 목표 설정에 있어 일관성이 부족하고 규제 대상에 있어 예외 조항이 많다며 "개발영세업체들이 정부 정책 목표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부족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15]고 비판하였다. 위와 같은 정책의 잦은 변화는 지속가능성을 해친다.

---

11) 오아영(2022.11.29.), <막대풍선, 축구·야구장 안되는데 거리응원은 된다? 헷갈리는 '일회용품 정책'>. KBS news, https://www.youtube.com/watch?v=ZwslZ-ZMJ0Q (2024.12.13.)

12) 이지원(2022.02).「Special Report 3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논란 : 이러다 또 자영업자 등만 터질라」.『더스쿠프』 제482호, 더스쿠프, 36~39쪽.

13) 신동섭(2024.09.02.), 「카페 플라스틱 컵 사용 다반사…일회용품 규제 유명무실」, 경상일보,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7837(2024.1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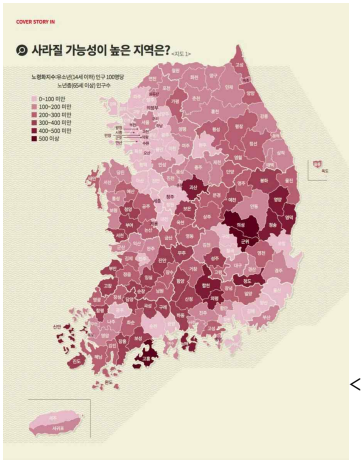
14) 문순홍·정규호(2000), 앞의 논문, 145~146쪽.

15) 문순홍·정규호(2000), 앞의 논문, 14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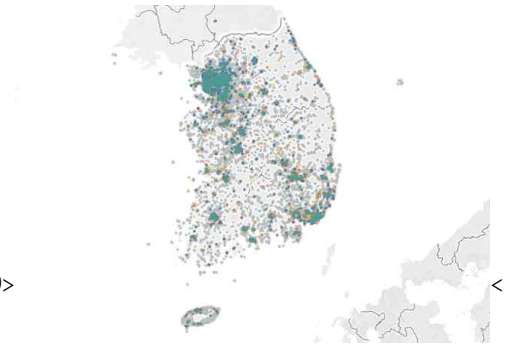
Ⅳ. 국내 일회용품 정책의 방향성 제시

1. 지역별 특성 반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일회용품 사용금지 정책 같은 경우 지역마다 중요도를 달리 가지기 때문이다.



<이미지 1[16]>



<이미지 2[17]>

이미지 1은 유소년 인구 대비 노령인구가 많을수록 진한 색으로 나타낸 지도이다. 이미지 2는 점 하나가 카페 하나를 나타낸다. 이를 비교 해봤을 때 노령인구가 많은 지역과 카페가 적은 지역이 겹치는 걸 알 수 있다. 카페는 일회용품 금지 정책의 규제를 많이 받는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는 매장 내 일회용품 금지가 가지는 중요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농촌의 경우 도시에 비해 주택의 밀집도가 떨어진다. 따라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 등이 전국적으로 도입이 된다면 컵 회수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회용 컵을 반납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지역들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충남 홍성군의 예시를 제안한다. 충남 홍성군 같은 농업이 주고 가구 밀도가 낮은 지역의 경우 농약병과 폐비닐 같은 영농폐기물을 불법 소각하고 방치하는 등의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홍성군은 홍성군 장곡면 주민들이 1년 동안 벌인 주민자치 사업을 토대로 폐기물 사업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18] 장곡면 주민자치 사업은 장곡면 일대의 영농폐기물을 무보수로 수거하고 치우는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1년간의 사업 진행 후 주민들은 무보수 사업의 한계를 느꼈고 사업 지원과 관련된 조례안을 홍성군의회에 제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탄생한 '홍성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홍성군이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고 처리하는 업무를 적극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9] 이는 마을사업을 통해 제안된 것으로, 주민들이 발로 뛴 경험을 통해 제안된 조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역에 꼭 필요한 활동이면서 지역 내에서 진행이 가능하다는 게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마을사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 등을 만드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각 지역에 맞는 품목을 규제하는 것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데 더 효과적일 것이다.

---

16) 임지영·신한슬·최예린(2018.01.09.),「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시사IN,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65(2024.12.01.)

17) 김민성·강종구(2020.07.13.), 「[팩트체크] 대한민국 커피점 90%, 7만5520곳이 '동네카페'」.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007099677G(2024.12.01.)

18) 이재환(2022.11.08.), 「농촌 주민들의 '영농폐기물 수거' 사업, 조례로 제정되다」.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79010(2024.12.01.)

19) 이재환(2022.11.08.), 위의 기사.

2. 접근성 및 지속성 강화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경우 교차반환이 안 된 것이 낮은 회수율의 원인 중 하나였다. 이의 대안으로,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수퍼빈의 네프론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회사 수퍼빈의 순환자원 회수로봇인 네프론은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캔과 페트병을 구분하는 기계이다. 네프론에 캔 또는 페트병을 넣으면 네프론이 이를 인식하여 포인트를 지급한다.[20] 현재 설치된 네프론의 개수는 2024년 1월 기준 전국 867대이다. 지자체에서 수퍼빈과 협력하기도 하고, 양천구의 경우처럼 스마트 종이팩 수거기 등 별도의 스마트 분리수거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도 한다.[21] 만약 이를 정부 차원에서 주도한다면 전국에 더 많은 기계를 설치하여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더해서 네프론에 일회용품 컵을 인식하는 기능을 추가한다면 보증금 또한 쉽게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일회용품 사용금지 항목 중 비닐과 플라스틱 컵에 대해서는 현장 불만이 크지 않았다. 이는 일회용품 사용금지 정책 이전에 비닐, 플라스틱 컵을 차례로 규제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단일 항목을 규제한 후 이를 오랫동안 유지한다면 그 범위를 넓히는 데에는 큰 불편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후의 정책에는 단일 항목, 혹은 소수 범위부터 적용한 뒤 천천히 항목과 범위를 늘리는 것을 제안한다.

접근성 및 지속성의 강화는 정책의 장기간 적용에 도움이 된다. 개인이 일상에서 쉽게 접하고 그러한 상황이 길게 이어진다면 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

3. 다회용기 사용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일회용 컵 회수율, 즉 재활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일회용품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회용 컵 회수율에 집중하는 것을 넘어서 다회용기 사용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회용기 배달어플이나 다회용컵자판기인 도리보틀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다회용기 배달어플은 기업과 지자체에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같은 배달어플에는 다회용기로 주문이 가능한 음식점들이 생기고 있다. 다회용기는 수거업체인 리턴잇을 통해 수거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공공시설 등에 다회용기 대여 및 수거, 세척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22] 이 외에도 환경부에서 다회용 택배 상자를 도입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다회용기 사용이 가능해지고 있다. 도리보틀[23]은 다회용컵자판기로, 앱의 이용권을 태그하면 다회용 컵에 얼음이 담기고 뚜껑이 조립되어 나오는 형식의 시스템이다. 이후 자유롭게 컵을 이용하다가 전용 반납함에 컵 하단을 태그하면 반납이 완료된다. 현재는 도리보틀 창립자들의 대학교 내에 설치를 논의 중이라고 한다. 이를 정부가 지원해서 얼음을 담지 않는 선택지까지 만든다면 카페 이용에 더해 편의점 내 일회용컵 사용도 줄어들 수 있다. 이처럼 기존에 시도되었던 어플이나 제도 등을 활용한다면 현장과의 갈등도 적을 것이고 비교적 시행착오도 적을 것이다.

Ⅴ. 결론

현재까지 진행된 일회용품에 관한 정부 정책은 그 정도가 미미하다. 커피전문점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

20) 수퍼빈 홈페이지 https://www.superbin.co.kr/company/nephron(2024.12.01.)

21) 권나연(2024.01.08.), 「쓰레기가 돈이 된다고?...환경 지키고 용돈도 버는 '쓰테크'」, 농민신문, https://www.nongmin.com/article/20240108500515(2024.12.12.)

22) 권나연(2024.02.07.), 「배달문화에 쌓이는 플라스틱 쓰레지...'다회용기'가 대안될까」, 농민신문, https://www.nongmin.com/article/20240207500611(2024.12.29.)

23) 이진호(2024.02.06.), 「[건국대학교 2023년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선정기업] ICT 기반 얼음 다회용 컵 자판기 서비스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도리보틀'」, 한경잡앤조이, https://magazine.hankyung.com/job-joy/article/202402066987d(2024.12.29.)

사용금지, 일회용 봉투 무상제공 금지 등은 잘 자리 잡았지만, 그 후속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일회용품 사용금지 등은 사실상 백지화가 된 상태이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잦은 정책 변화, 성급한 도입 등으로 인한 현장과의 갈등과 지속가능성 확보 실패를 들 수 있다. 보완책으로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 접근성 및 지속성 강화, 다회용기 사용 등이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는 이후 정책 방향성에 대해 기존의 제도를 적극 활용한 것을 제안한다. 마을사업을 통해 제안된 조례를 통과시킨 홍성군처럼, 네프론이나 다회용기 배달어플, 도리보틀 등 이미 사용되고 있는 사업들을 활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지역에 맞는 정책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기존 사업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더해서 정책은 단일 항목, 소수 범위 등 개인이 이해하기 쉽고 구분이 명확하게끔 시행되어야 한다. 단일 항목, 소수 범위에 익숙해졌을 때 그 항목을 늘려가는 등 장기적 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정진영·이희란[24]에 따르면 대학생 중 일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에 대해서 환경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2.9%에 이른다고 한다. 그 이유는 환경보호를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는 소비자가 일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는 걸 나타낸다. 적절한 정책, 즉 개인이 쉽게 접근하고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이 도입된다면 소비자들은 기꺼이 따를 것이다. 개인에 일상을 고려한 정책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문화가 대한민국에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24) 정진영·이희란(2019), 앞의 논문, 64쪽.

참고문헌

논문

- 김병연(2011).「생태 시민성 논의의 지리과 환경 교육적 함의」,『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19(2),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221~234쪽.
- 문순홍·정규호(2000),「생태근대화론으로 분석한 우리나라 일회용품 관리 정책」,『현상과인식』통권 81호, 한국인문사회과학회, 136~153쪽.
- 유재영·이욱·황혜선(2023),「일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온라인 뉴스 및 댓글 분석」,『소비자학연구』제34권 제5호, 한국소비자학회, 1~28쪽.
- 정진영·이희란(2019),「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이 환경보호에 대한 대학생의 의식수준에 미치는 영향 연구」,『한국생활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한국생활과학회, 64~64쪽.

인터넷 기사 및 잡지

- 권나연(2024.01.08.), 「쓰레기가 돈이 된다고?...환경 지키고 용돈도 버는 '쓰테크'」, 농민신문, https://www.nongmin.com/article/20240108500515(2024.12.12.)
- 권나연(2024.02.07.), 「배달문화에 쌓이는 플라스틱 쓰레지...'다회용기'가 대안될까」, 농민신문, https://www.nongmin.com/article/20240207500611(2024.12.29.)
- 김민성·강종구(2020.07.13.), 「[팩트체크] 대한민국 커피점 90%, 7만5520곳이 '동네카페'」.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007099677G(2024.12.01.)
- 김세현(2024.06.05.), 「5년 내 지구 기온 '1.5도' 돌파 가능성↑9…WMO "암울한 현실"」, 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81309(2024.11.31.)
- 박준영(2024.02).「거꾸로 가는 환경 정책 일회용품 규제 포기한 정부… 소상공인 피눈물」.『월간환경』2024년 2월호, (주)이젠그린, 78~81쪽.
- 신동섭(2024.09.02.), 「카페 플라스틱 컵 사용 다반사...일회용품 규제 유명무실」, 경상일보,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7837(2024.12.01.).
- 이지원(2022.02).「Special Report 3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논란 : 이러다 또 자영업자 등만 터질라」.『더스쿠프』제482호, 더스쿠프, 36-39쪽.
- 이진호(2024.02.06.),「[건국대학교 2023년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선정기업] ICT 기반 얼음 다회용 컵 자판기 서비스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도리보틀'」. 한경잡앤조이, https://magazine.hankyung.com/job-joy/article/202402066987d(2024.12.29.)
- 이재환(2022.11.08.), 「농촌 주민들의 '영농폐기물 수거' 사업, 조례로 제정되다」.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79010(2024.12.01.)
- 임지영·신한슬·최예린(2018.01.09.),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시사IN,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65(2024.12.01.)

영상 및 홈페이지

- 수퍼빈 홈페이지 https://www.superbin.co.kr/company/nephron(2024.12.01.)
- 오아영(2022.11.29.), <막대풍선, 축구·야구장 안되는데 거리응원은 된다? 헷갈리는 '일회용품 정책'>. KBS news, https://www.youtube.com/watch?v=ZwslZ-ZMJ0Q(2024.12.13.)
- 이초원(2022.10.26.),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제한' 우리 실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딜티:딜라이브 TV, https://www.youtube.com/watch?v=jxPm8GSYsCc(2024.12.12.)
- 장세만(2023.11.07.), <일회용품 사용 규제 완화...종이컵·플라스틱 빨대 허용>, SBS 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LQkGRnoxt8k(2024.12.12.)
- 정성원(2024.11.02.), <"가격도 2배인데 굳이?"...외면 받는 종이빨대>, 채널A News, https://www.youtube.com/watch?v=oze-rW2zcUE(2024.12.11.)